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바꿈」 공동포럼

‘버니 샌더스’ 돌풍과 한국 정치

**Nobody who works 40
hours a week should
be living in poverty.**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빈곤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버니 샌더스



2016년 3월 3일 (목) 저녁 7시
가톨릭 청년회관 4층 바실리오홀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정희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
『버니샌더스의 정치혁명 기획자』

1. 샌더스는 어떤 인물인가?

* 책 출간 후 프레시안(이대희 기자)의 기사는 샌더스의 이력과 의미를 잘 요약

한번 상상해보자. '보수의 아성' 경상북도 도청이 들어설 농업 도시 안동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그곳에서 새누리당을 강경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시장 선거에 나왔다. 동성애자·여성·이주민과 연대하고,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주류 언론을 맹렬히 비난한다. 간단히 말해 '종북 빨갱이' 시민운동가 출신이다.

놀랍게도, 그가 당선됐다. 그는 4선 시장이 되었고, 내친김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나섰다. 놀랍게도, 또 당선됐다! 그리고, 그는 내리 10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두 압도적인 표차로 새누리당 후보를 눌렀다. 마지막 선거 때 지지율은 무려 70%가 넘었다.

그의 등장 이후 안동은 한국의 진보 정치를 상징하는 도시가 됐다. 안동을 바꾼 그는 이제 "한국을 바꾸겠다"며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섰다.

- 1941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출생

“나는 뉴욕 주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중하위 계층 집안에서 자랐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면 집안에 긴장감과 우울한 분위기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페인트 판매원으로 날이면 날마다, 달이 가고 해가 가도 열심히 일했다. 먹고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었지만, 방 세 개 반짜리 월세 아파트에서 나와 우리 집을 장만해 이사하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49쪽”

- 1960~1964 대학시절 : 브루클린 칼리지 → 시카고대학

“대학에서는 인종평등회의, 학생평화연합, 청년사회주의동맹에 가입해 활동했다. 인종 분리 정책을 종식시키자는 시민운동에도 참여했고 핵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집회에도 나섰다. 아주 잠깐이기는 하지만 식품가공노동자연합이라는 노조에도 몸담았다.”

- 1968년 버몬트주에 정착

1972년 1월 군소정당인 자유연합당 소속으로 첫 선거(버몬트 주 하원의원) 출마 2.2퍼센트 낙선 7월 주지사 선거 1.1퍼센트 낙선.

1974, 1976년 낙선.

1979년 탈당 후 잠시 사업 - 미국 노동운동가들의 일대기를 영상자료로 만드는 사업.

1981년 벌링턴 시장 선거에 무소속 출마 50.06퍼센트, 2위와 단 10표차로 당선.

1981~1988 시장 재직.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박수 받으며 퇴장.

1990 하원의원 당선(버몬트 1석) 56퍼센트 득표. 이후 8선.

2006 상원의원 당선 65.4퍼센트, 2012년 재선 71퍼센트.

2010년 8시간 35분 필리버스터 - 오바마 부자 감세안에 반대 : 전국구 스타

- 2015년 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 출마 선언

(전국 지지율 4퍼센트, 힐러리 60퍼센트 → 2016.2.20. 여론조사에서 첫 역전 47 : 44)

2.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이건 한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싶은 측면이 여럿. 자서전에 쓴 이야기들로 대신.

1) 언론

미국인들은 뉴스의 85퍼센트를 TV로부터 얻는다. 그리고 그 뉴스들 대부분은 주요 방송국 여섯 군데에서 제공한다. NBC는 제너럴일렉트릭(GE), CBS는 웨스팅하우스, ABC는 디즈니, 폭스(FOX)는 우익 성향의 억만장자 루퍼트 머독이 소유하고 있다. CNN은 최근 세계 최대의 연예사업복합체인 타임워너가 사들였다. -342쪽

- 지금 우리가 종편 출현 이후 겪고 있는 현상을 샌더스는 정치 활동 기간 내내 겪었다는 뜻.

미국 일간지의 80퍼센트는 기업 체인이 소유하고 있다. 3개 회사가 TV산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4개 회사가 영화 산업의 절반 이상을 소유한다. 5개사가 출판 총매출의 절반 이상을 벌어들이고 있다.

여론매체의 독점이 우리와 비교도 안될뿐더러 거대 기업이 직접 장악.

2) 기업과 부자들의 견제

미국 기업들도 나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 미국상공회의소가 조직한 주요 기업 집단, 전미제조업협회(NAM), 전미자영업연맹(NFIB) 등이 나를 '제거 대상자 명단' 일순위에 올려놓았고 수만 달러를 들여 버몬트 주 전체에 우편물을 배포하고 부정적이고 거짓투성이인 TV 광고를 내보냈다. 선거운동 막바지에 버몬트 주 유권자들은 나를 공격하는 TV광고를 네 편이나 보고 있었다. 우리는 전미총기협회(NRA), 전미노동권변호재단(NRTW)을 비롯해 다양한 우익 및 거대 자본 조직의 공격을 받았다. - 35쪽

- 미국은 기업과 부자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 그중 하나가 슈퍼 팩이라는 제도(조직).

3) 거대 양당 사이의 무소속 사회주의자

별링턴 시에서는 진보 진영이 민주당을 밀어내고 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모두가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정통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가 내가 연설할 때 일어나 돌아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연설을 마치고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청중 가운데 한 여성이 내 따귀를 갈겼다. 흥미진진한 밤이었다. -145쪽

토론이 끝난 후 항상 청중 가운데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한다. “버니, 당신이 한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오. 하지만 제3당 후보에게 투표해서 내 표를 사표(死票)로 만들고 싶지는 않소.” 나는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다. -56쪽

*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청교도, 캘빙주의) 이민의 후예, 냉전 당사자로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을 거치며 연속 강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증오감, 매카시즘으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반공주의, 프론티어 정신에 연원을 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 경쟁을 추구하는 사회 기풍 등등에 대해서는 생략.

3. 샌더스 정치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목표와 노선의 비타협적 일관성

-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에 가까움.

**정치에서는 절대다수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이상적 민주주의의 구현
경제에서는 99%인 노동자,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해 운영되는 경제 정책**

이걸 민사주의라 하든, 사민주의라 하든, 그냥 민주주의라 하든 한마디로 상식인데, 현실은 상식과 다르다. 실질적으로는 1%를 위한 정책이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냥 앉아만 있을 거냐?

→ “국가 정책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노동자와 저소득층, 중산층을 위한 정책으로.” 이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설득해나간 정치 일생.

2) 현실 정책은 서민에 초점, 구체적인 성과, 작동 모델, 승리 경험의 축적

- 이상과 목표는 타협하지 않으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경제 여건과 복지를 개선하고 환경과 공공성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

ex> 정책 사례

① 저소득층과 공공성 최우선 정책 : 토지신탁 주택 건설 사례

- 노동계층에 별링턴토지신탁 통해서 시가보다 낮은 주택 공급.
- 노동자들이 집을 매각할 때는 시가가 아니라 은행이자 정도만 가져가는 데 동의하는 조건.
- 사실상 집값이 노동계층 소득 수준으로 영구 유지.
- 첫 시장 당선시 임대아파트 헐고 호숫가 콘도미니엄 세우려던 지역 유지들 →

“열심히 일하는 336 가족을 내쫓겠다구요? 날 먼저 죽이고 그렇게 해보라고 하세요”

② 개별 이익집단과 전체 시민 이익의 조화 : 시티마켓 사례

- 자생적인 소규모의 유기농 생협, 2002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 입점할 위기.
- 시의회 결의로 이 협동조합을 지원. 규모 늘리되 조합원 아닌 일반인과 저소득층 이용 가능하도록 상품 종류와 이용 문호 개방.
- 현재 미국내 3천개 협동조합 매장 중 연매출이 가장 높고 직원 급여와 복지 최고 수준.
- 협동조합은 생산자(제품 공급자)에게 무이자 론을 제공하는 상생적 관계.
- 월마트, 타깃 등 대형마트가 없는 도시.

* 이러한 현실 개선, 작동하는 대안 모델 형성을 통해 승리 사례를 축적하고 과정과 결과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

- (a)일관된 노선, (b)현실에서 구현하는 구체적인 실천 정책 (c)승리 경험과 모범 사례의 축적 (d)시민들의 호응과 참여 확대... 라는 네 박자가 순환하면서 일관되게 관철.

-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우리 정당과 정치인들 너무 자주 바꾼다. 정책과 노선을. 우클릭 좌클릭... 그리고 승리 경험과 작동하는 대안 모델이 부족하다.

3) 샌더스의 의회주의

- 하원시절 '금융 및 지역사회개발위원회', '정부운영위원회' 소속하여 활동

- 의회 내에 진보적 의원들의 모임인 '프로그레시브 코커스' 만들고 의장으로 활동

- 정당 배경이 없는 무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민주, 공화를 견인하며 활발한 입법 활동.

↳ 매우 꼼꼼하게 준비하고 여야의 경쟁 구도를 이용하고 명분과 여론을 등에 업고 입법 추진하여 적잖은 성과를 냄.

↳ 무소속 사회주의자의 역할을 각인시킴.

↳ 민주, 공화를 강하게 비판하지만, 개인 의원에 대해 날선 적대감을 보이지 않음.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일맥상통.

ex> 두 차례에 걸친 최저 임금 인상법안, 국방부의 군수기업 지원 예산안 철폐시키는 <스미스 샌더스 수정안> 통과 등

- 의원 자리를 입법 활동에 국한하지 않음. 의제의 이슈화, 현장 지원, 문제가 있는 곳에 달려가는 대중 지향적 활동.

- 주말에는 언제나 지역에 내려와 타운 미팅과 조직 활동. 하원 기간 동안 딱 두 번만 워싱턴에서 주말을 보냄.

4) 보다 근본적으로, 버니 샌더스에게 정치란?

* 그리고 보면 '정치'의 개념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다.

- 의식화, 조직화를 통해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일(철저한 운동 개념)

- 샌더스는 "판을 바꾸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참여이며 정치는 이를 조직화하는 과정"이라고.

↳ 자신의 정치 성공을 당선이나 의회 진출이 아니라 주민 투표율의 꾸준한 향상, 진보 조직의 성장에서 찾는다.

↳ 1979년 7,000명, 1981년 9,300명, 1983년 13,320명, 1984년 18,129명...

* 구체적으로 외곽 조직들을 형성 : 벌링턴 인민공화국

↳ 지역의 진보 연대가 지방 조직을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시정 참여.

* 결국 의식화, 조직화다. 어떻게 풀어갔는가?

ex) **조직화의 사례**

① 골간 : 벌링턴 진보연합

- 샌더스 시장 당선 후 의회와의 첫 만남에서 의회는 그의 비서를 해고.
- 일년 동안 샌더스 주요 보좌진 임명이 안 되어 보수도 없이 샌더스 집 식탁에서 시정 논의
- 시정 풀어가기 위해서 의회를 장악해야 했고, 이를 위해 정당에 가까운 조직, 벌링턴 진보연합을 만들. 주법상 정당은 아니지만 주 전체에 영향력.
- 버몬트주 전체가 진보의 요새로 된 근간.

② 외곽 : 여성위원회

- 처음 시장 산하 여성위원회 만들면서 급진부터 보수까지 여러 여성단체들을 참여시킴.
↳ 내리꽃는 게 아니라 기존의 자생적 시민단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 여성위원회에서 여성 지위 향상을 위한 여러 연구, 캠페인, 정책, 법안을 내놓게 함
- 이 성과들을 계승한 벌링턴 여성위원회로 발전
- 이러한 (외곽)조직은 시정의 든든한 지원 협조자이자 시행 주체. 샌더스 퇴임 이후에도 벌링턴시의 진보 정책이 계승됨.
- 부인인 제인 오메라 드리스콜도 이러한 청소년위원회 자원봉사자 출신.
- 자원봉사자 → 시민단체 활동가 → 시정 참여 →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흐름.

ex> **의식화의 사례**

- 선거운동, 일상 시정활동, 의원 활동에서 공히 주민과의 직접 대면, 소통, 토론을 기본으로.
- 거의 전면 접촉이라 할 만큼 모든 타운을 누빔.
- 속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의 일단.
- 저널리스트 존 니콜스(에필로그)의 동행 취재기

“그는 하원 초선의원 때부터 버몬트 주 최말단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며 한 가지 사안을 집중 토론하는 마을 주민회의를 열었다. 토론은 보통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다. 전문가들과 샌더스는 청중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에 대해 마음껏 캐묻고 이익을 제기하고 불평하고 반대하라고 독려했다. 실제로 주민들은 이리저리 샌더스를 몰아붙이며 적

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얻었다.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경제와 시민사회를 조직화하는 대안들을 모색할 수 있었다.”

5) '우리에게 샌더스가 없는가'란 질문?

- 샌더스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엔 샌더스가 없냐? 한국의 샌더스는 누구냐? 등등. 추천사를 쓴 조성주 정의당 미래정치연구소장도 같은 말. 나도 처음엔 이런 탄식.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제기가 틀린 것 아닌가 생각 미처.

* 대학시절 도서관에 살면서 읽은 책이 오늘의 샌더스를 만들었다.

“학교 수업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었지만 책은 닥치는 대로 읽었다. 수업에 필요한 책은 빼고 말이다. 시카고 대학 도서관은 미국 최대 도서관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나는 대부분의 책이 소장되어 있는 도서관 지하 서가에 파묻혀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주로 미국과 유럽 역사, 철학, 사회주의, 심리학 서적을 읽었다. 그때 읽은 책의 저자들로는 제퍼슨, 링컨, 프롬, 듀이, 뎀스,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프로이트, 라이히 등이 있다.”

- 예나 지금이나 변화나 진보를 원할 때 첫 출발은 책임기, 공부, 이걸 의식화라고도 했지만 운동권식 용어 접어두고 새로운 지식에 대한 흡수, 변화를 지향한 꾸준한 탐구.

저항의 시대였던 1980년대는 금지도서라는 그 험한 환경에서 사회과학 도서 특히 역사, 사회, 혁명론, 경제, 철학서 등이 베스트셀러였고 결국 5공 독재정권 물리친 큰 저변이 됨.

* 샌더스의 주장을 들어주고 함께 실천하는 버몬트 주민들이 있었다.

- 우리 스스로 공부해야 하지 않는가. sns에서 좋아요 누르기 퍼나르기에 그치지 말고, 오프라인으로 나아가서 조직을 만들고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내 지역의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단 한 단체 한 정치가에게라도 후원금 보내고 자원봉사활동부터 참여해야 하지 않는가.

-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샌더스 같은 정치인이 없는가? 또는 어떤 정치인이 샌더스와 닮았는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는 샌더스 같은 정치인을 키울 수 있는 시민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샌더스와 같은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시민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

마치며

“우리는 모두를 위한 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 부유층과 권력층이 과도한 영향력을 휘두르는 상황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우리는 이 나라를 바꾸겠다. 그리고 풀뿌리 차원에서 변화를 시작해 점점 더 위로 변화의 기운이 퍼져 나가도록 하겠다.

달리 말하면, 버몬트 주에서 우리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는 지역사회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정하고, 세를 조직하고, 정치적 절차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재건하자.”

‘리얼 씽(real thing)을 찾아서’

- 샌더스 돌풍, 힐러리의 고뇌, 그리고 한국 정치에의 시사점¹⁾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 문제의식: 미국문명의 미래를 둘러싼 거대한 전환기 선거

- 공화당의 아이디어를 벤치마킹한 오바마의 우파적 의료보험 개혁조차 ‘빨갱이’로 몰리는 나라에서 사회민주주의자 샌더스의 돌풍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더구나 트럼프와 같은 보수 포퓰리즘의 반격이 어마어마한 대중적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어떻게 좌파 샌더스의 바람이 공존할 수 있을까?
- 혹시 이 기적 같은 현상들은 한국 정치에도 중요한 징후를 선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이 기적, 혹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샌더스, 트럼프 현상 등에 대해 미국 지식인들은 수 없이 예측이 틀리거나 혹은 당황하여 갈팡질팡하고 있음.
- 발표자의 시각에는 지금 미국은 수십년간 계속된 레이건 보수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질서로 이행 중에 그 성격 규정을 놓고 다양한 층위에서 문명적 차원의 대충돌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 발표자는 지금을 퇴조기 미국의 정치 교착 상태로 규정하는 후쿠야마 교수의 디스토피아나 혹은 신진보주의 시대로 규정하는 스탠리 그린버그 전 약가의 유토피아식 단순한 테제에 동의하지 않음. 한국인들의 이해를 위해 다소 단순하게 도식화하자면,
- 각 정치세력의 어메리칸 드림을 둘러싼 비전 투쟁의 시대

1) 이 메모는 3월 3일 뉴파티위원회가 요청한 강연용 메모를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 리버럴의 새로운 진보주의 시대를 만들려는 실용주의 진보주의자 오바마, 힐러리 진영, 뉴딜 민주주의 시대를 복원하려는 샌더스 좌파 진영, 과거 뉴딜 이전 천민자본주의 시대와 레이건 보수주의 향수가 결합된 공화당 주류 보수주의 진영, 뉴딜 시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트럼프의 풀뿌리 포퓰리즘 운동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각축임.

- 상승하는 소수계 이민자 문명 vs 퇴조하는 백인 주류의 헌팅턴식 문명의 충돌

: 힐러리와 샌더스의 다문명 공존론 대 트럼프의 백인 주류 문명론

- 새천년 세대 vs 베이비 붐 세대의 이후 '헬 미국'의 비전을 둘러싼 세대 전쟁

: 새천년 세대의 샌더스 대 베이비 부머의 힐러리, 새천년 세대 진보주의 기반의 민주당 대 베이비 부머 보수주의의 공화당의 충돌

- 이 강연용 메모는 미국 정치에서 샌더스 혁명이 차지하는 맥락 및 한국의 리버럴 정치에 던지는 시사점을 간단히 제시함(보다 자세한 내용은 5월 출간 예정인 단행본을 참조할 것)

* 샌더스 현상이란?: 미국의 황금기인 뉴딜 민주주의 복원의 꿈

- 지금은 미국인들이 있었지만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뉴딜 민주주의 정치질서)에는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정당으로의 민주당의 변화의 아주 작은 가능성이 존재함

- 위를 가능하게 할 소비에트 모델과의 경쟁, 유진 덩스 사회주의 리더(샌더스의 롤 모델) 등 사회당 운동. 전투적 노동운동이 민주당에 압력으로 존재

- 하지만 이후 좌파와 노동 진영이 내부 분열 및 전투성이 약화되고 미국 민주당은 주로 중도 리버럴 정당으로 고착화

- 이 뉴딜 민주주의 시대는 미국 경제의 '더불어 성장'의 황금기이자 국제적 헤게모니 구축기. 정치적으로 백인 위주의 리버럴 민주주의 시기.

- 뉴딜 민주주의 시대 이후 보수주의 물결 속에서 한때 스티븐슨, 맥카시, 맥거번 등 지성주의적 리버럴 좌파 정치가들의 기성 정치에의 연이은 대선 도전은 선거 참패 및 민주당 불임정당화로 귀결
- 레이건 보수주의 흐름에 적응한 네오 리버럴인 클린턴, 고어 등 신민주주의자 등장으로 미국 민주당은 집권에 성공
- 오바마는 클린턴 신민주주의 흐름을 일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하는 실용주의적 진보
- 뉴딜 민주주의자가 사라진 가운데 드물게 명맥을 유지해온 걸출한 두 상원의원이 고 웰스턴과 현재의 샌더스 상원의원임.
- 샌더스의 꿈은 경제 민주화 시대의 부활, 다시 미국을 레이건 보수주의나 오바마의 중도 리버럴에서 루즈벨트의 뉴딜 민주주의 시대로 복원하는 것임

***샌더스의 행운: 새천년 세대, 그리고 월가 점령 운동과 뉴딜 민주주의자의 조우**

- 철저히 미국 주류 양당 정치에서 주변화된 샌더스는 연방주의 미국에서 지역 차원에서 뉴딜 민주주의 모델의 전형을 만들어냄.
- 미국 좌파 운동 일각은 개인 스타 위주 성급한 중앙 무대 승부보다는 힘들고 빛이 나지 않지만 풀뿌리 차원의 토대 구축을 지혜롭게 모색
- 결국 뉴딜 민주주의를 파괴한 레이건 보수주의 시대의 극단적 시장주의는 클린턴 리버럴의 승리를 가져옴. 하지만 연방준비은행 등의 압박 속에서 뉴딜 민주주의 복원 대신에 점진적 개혁과 금융자본주의 패러다임 강화를 선택한 클린턴은 로버트 라이시 등으로 대표되는 리버럴 좌파 진영을 실망시킴.
- 클린턴 리버럴 시기에 대한 보수의 역풍은 조지 부시를 당선시킴. 하지만 부시의 극단적 시장주의 및 미국판 세월호 사태인 카트리나 재난(정권의 대응방식이란 점에서), 미국판 필리버스터 폐지 시도, 무리한 이라크 전쟁 등 무리수에 대한 역풍 등으로 기적처럼 오바마를 당선시킴.

- 하지만 경제 위기의 한복판에서 오바마의 점진주의적 레이건 보수주의 해체 작업과 의료, 이민, 동성애 등에서 신진보주의 흐름은 좌우 모두에서 공격받음. 오바마 당선 이후에도 스티글리츠 교수 지적처럼 ‘대마불사 신화’의 존속과 1% 최상층과 중,하층 간극 확대는 포퓰리즘 운동의 비옥한 토양으로 작용. 이는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과 티파티, 트럼프 현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오바마의 점진주의 행보에 지친 일부 시민들은 월가 점령 시위를 통해 기존 레이건 보수주의 및 오바마, 힐러리 중도주의에 대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이는 민주당 혁신의 새 동력으로 작용
- 민주당이 다시 거버넌스 정당에서 운동의 정당으로 변모하기 시작하면서 과거 무브온 운동이 클린턴, 오바마를 탄생시켰다면 월가 점령 운동이 샌더스를 만들어냄
- 오늘날 극단적 경제 양극화, 금권정치로 망가진 미국에서 민주당의 실용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시대 정신에 맞게 스티글리치, 로머 등의 ‘더불어 성장’(shared prosperity)론을 리버럴의 지배적 대안 담론으로 승격시킴(로머는 오늘날 샌더스 좌파주의 논쟁의 중심에 있음)
- 하지만 더불어 성장론의 정치 주자일 수 있었던 워렌 상원의원 등 진보 기대주가 대선 참여를 포기하면서 좌절감에 빠진 진보 세력들에게 샌더스의 민주당 참여는 새 동력으로 작용
- 새로운 진보주의 흐름을 이끄는 새천년 세대는 오바마에 이어 그들의 ‘헬 미국’의 미래 비전으로 샌더스를 선택함. 미래 문명의 주도 세력인 새천년 세대와 과거 뉴딜 민주주의자의 상호 윈 윈 연합이 우연히 형성된 셈임.
- 샌더스의 꿈은 경제 민주화 시대 뉴딜 정치질서의 복원, 방식은 아래로부터의 리얼 체인지, 주요 아젠다는 금권 선거 타파,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 전 국민 의료보험, 대학 무상 교육, 대형은행 해체, 부자 증세 등임
- 기성 워싱턴 리버럴 정치 문법을 벗어난 샌더스의 힘을 좌파 스펙트럼으로만 한정해서 이해하면 협소함. 그는 넓게 보면 미국인들에게 큰 공명을 일으키는 맥카시, 바비 등 ‘진정성 정치’(real thing)의 흐름을 이어가는 계보이기에 엄청난 파괴력 지녔던 것임.
- 대중문화적으로 보면 리얼 씽 문화의 상징이자 필리버스터 영웅인 ‘스미스 씨 워싱턴에 가다’의 스미스 상원의원(올드 세대) 이나 혹은 ‘헝거계

임' 영화의 에버딘(새천년 세대)처럼 시스템을 흔드는 '시민 정치 영웅'으로 인지함. 정치는 영웅 모델과 스토리텔링의 경쟁임.

- 샌더스의 주요 정치기반은 새천년 세대/진보적 백인/싱글 여성 등 진보적 정치연합이지만 민주당 대선 필승의 드림 공식인 오바마의 무지개 연합(소수계가 추가)에 비해서는 협소함.
- 이들 샌더스 지지기반은 '그렇소 나는 사회주의자요' 하는 샌더스의 고백에 전혀 개의치 않음. 싱글 여성 등 오늘날 경제적,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흔들리는 이들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최저 임금/유급 휴가/낙태/동성애 결혼에 대한 진보적 변화는 21세기 생존의 문제임
- 위 아젠다를 위해 평생을 극우와 싸워온 힐러리 여사 등 그룹은 자기 발밑의 지층이 거대하게 이동 중임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싱글 여성, 새천년 세대 등이 왜 점진주의가 아니라 더 리얼한 변화를 원하는지 당황하고 짜증내고 있음.
- 샌더스는 '오바마를 건드리지 않는 반(反) 오바마주의'라는 기묘한, 모순적 태도로 침체에 빠진 미국 민주당에 새로운 역동성, 혁신의 바람을 불어 넣음. 현재 힐러리 여사는 '버니화'를 통해 확장성을 탁월하게 시도 중임.
- 하지만 아직 강경 보수주의의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크루그만 등 미국 리버럴들은 샌더스의 급진주의 실현 가능성에 큰 회의를 품음.
- 미국 리버럴들은 힐러리(실현가능한 진보)와 샌더스(시스템 자체의 변혁)가 동시에 필요한 미국 민주당 상황에서 이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적정 균형점을 놓고 고뇌에 빠짐
- 주류 리버럴들의 멘탈을 대중문화로 비유하자면 지금 힐러리는 '다크 나이트 라이즈' 영화에서 고뇌하는 개혁가인 벤투맨으로 상징된다면 샌더스나 트럼프는 월가를 공격하는 군중의 여러 버전으로 상징된다고 할 수도 있음
- 미국 리버럴들은 아직 극우적 보수주의 지형이 강한 미국에서 실제 일보 전진의 진보적 변화를 이루어내면서도 동시에 열정 지지자층의 '헬 미국' 탈출로의 강렬 욕구를 실현해야 하는 난해한 퍼즐을 풀어야 함. 이를 풀지 못하면 서민의 좌절감을 교묘히 활용하는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의 부단한 출몰에 시달릴 운명임

- 만약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일 경우 그와의 본선을 이미 이긴 것처럼 장담하는 지성주의적 성향의 리버럴 분석가들은 아직도 지금의 '분노의 시대' 본질을 잘 모르는 이들임

*** 진정한 혁신은 아래로부터: 한국정치에의 시사점**

<도전자 정신으로의 혁신의 필요성>

- 한국판 뉴딜 민주주의를 꿈꾸었던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는 한국 민주당 리버럴들의 대표적인 도전자 브랜드임. 오늘날 한국 야권은 다시 역동적인 도전자 정당으로 함께 대혁신을 하지 않으면 심각한 정치의 위기가 기다리고 있음. 미국은 오늘날 신진보주의와 경제혁신의 역동성의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음.
- 오바마(리버럴)와 샌더스(좌파) 둘 다의 대약진은 때로는 정치에서 진보화나 보수화가 핵심이 아니라 기성 문법과 다른 도전자 태도가 핵심임을 시사.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정치 유동성이 높아 이념적 스펙트럼간의 쟁투의 틀로만 이해하면 앞으로도 자주 실패할 것임.

안정감? : 혁신은 도전자 운동이다

- 현재 한국 리버럴과 좌파 진영의 정치는 미국과 유럽의 제도론을 배우거나 안정감, 신뢰 등 가치 회복(1등 브랜드의 가치) 이전에 우선 도전자의 가치, 애티튜드,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
- 이 가치 정치 운동은 과거 이념과 관성의 운동이나 권력주의 정치가 아니라 새 시대의 가치와 감각, 미래 세대 등과의 결합을 통한 운동으로서 정치임
- 샌더스는 새 시대정신을 포착하여 안전한 진보의 길 대신에 마치 매드 맥스 영화의 메시지처럼 자신에게 위협한 민주당 플랫폼에 정면으로 뛰어

들어 도전자 브랜드로서 1등 브랜드인 힐러리를 위협하고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시킴

- 한국도 거대한 전환기에 놓여있기에 누가 매드 맥스인가, 담대한 도전자의 영혼을 구현하는가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에 격랑이 일 것임. 현재 미국과 한국의 시대정신은 애들라이 스티븐슨 류의 지성주의 캠페인의 시대가 아니라 매드맥스와 헝거게임의 여전사 퓨리오사나 에버딘의 시대임. 이를 이해하기에는 지금까지의 힐러리는 너무 인사이드 게임에 적응해온 과정임.

후보자의 비전? : 혁신은 우리의 가치에 대한 운동

- 힐러리의 여전한 90년대 나의 정치 패러다임 관성(I will fight for you)
- 오바마는 21세기 리버럴의 우리가 함께 하는 변화(we need change)
- 샌더스는 21세기 좌파의 우리가 함께 하는 '진정한' 변화(we need real change)
- 한국 리버럴과 좌파들은 이 우리의 감수성을 입법과 캠페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않고는 새로운 확장성 가지기 힘들.
-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미래의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당장 총,대선과 국회에서 시민 개입주의 정치모델을 누가 실질적 구현하는가임.

건전한 정책주의?: 혁신은 열정의 퍼포먼스다

- 힐러리의 지성주의 타운홀 캠페인 경향
- 오바마의 지성과 힙합 정치가 어우러진 예술적 퍼포먼스
- 샌더스의 지성적 '랩 정치'
- 과도할 정도의 열정의 퍼포먼스가 없는 정치혁신은 새 동력을 만들지 못함
- 한국 진보주의자들의 영화는 한류를 만드는데 정치권 진보주의자는 퍼포먼스에 둔한 기이한 퍼즐
- 21세기는 It's performance, stupid!

신중한 점진주의? : 혁신은 직전의 과거와 단절이다

- 힐러리 점진주의는 유감스럽게도 캠페인과 잘 어울리지 않는 대통령의 모드

- 샌더스의 급진주의 혁신론은 캠페인과 잘 어울리고 거버넌스와 잘 어울리지 않는 모드
- 정치를 잘 안다고 항상 자부하는 한국 리버럴들은 오바마, 샌더스와 반대로 캠페인은 점진주의, 거버넌스는 급진주의로 하는 기이한 경향. 쿠오모 표현처럼 시와 같은 캠페인과 산문과 같은 거버넌스의 본질을 이해해야 선거 승리와 집권 후 안정적 거버넌스가 가능함.

포퓰리즘 거부? : 혁신은 반(反) 기성 엘리트이다

- 힐러리의 엘리트주의는 '포퓰리즘'(반 기득권, 반 엘리트의 서민 정치)에 대한 거부감
- 한국 보수 언론에서 학문적으로 엄밀한 의미로 규정된 포퓰리즘을 부정하는 태도는 위선과 무지(강남좌파론은 한국 보수들의 탁월한 미국 네오콘 포퓰리즘 베끼기임)
- 하지만 동서고금의 모든 정치에서 포퓰리즘은 필연적인 정치의 일부
- 샌더스의 반 기득권, 반 엘리트주의 포퓰리즘은 적절히 제어되기만 한다면 리버럴 정치의 생명수로 작용
- 과거 무브온 등의 과도한 엘리트주의 공격과 열정은 양날의 칼
- 김대중의 '균형잡힌 포퓰리즘'이나 조봉암의 진보적 포퓰리즘 전통이 정치의 역동성을 만들

미래 비전과 가치가 전부?: 혁신은 손에 잡히는 경험이다

- 샌더스가 비대중적 좌파 운동과 가지는 차이는 공허한 레토릭이 아니라 지역에서 실제 진보적 모델의 성취에 기반한 것임
- 한국과 달리 미국의 연방주의의 위대함은 이 실제적 혁신 경쟁을 가능하게 함. 한국도 이 변화 없이는 결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이 불가능함.
- 2017년 대선 기점으로 한국 정치도 실제 성취가 검증된 리버럴들의 시대가 올 것임

유연성?: 혁신은 일관된 등대의 정체성이다.

- 수십년간 일관된 샌더스의 '리얼 씽' 브랜드는 진정성 부활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결국 돌풍을 일으킴

- 한국 정치에서도 누가 리얼 씽인가. 누가 ‘바보 노무현’, ‘바보 김근태’인가가 중요해짐

아젠다와 전술? : 혁신은 깊은 철학의 산물

- 샌더스는 단지 진보 강령의 신념가를 넘어 공화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철학의 소유자임
- 단순히 민주주의자 넘어 시민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애국의 철학인 공화주의자일 때만이 비로서 단지 젊은 세대만이 아니라 샌더스처럼 모든 세대 및 보수 유권자도 포괄할 수 있는 힘이 생김
- 샌더스의 이상인 유진 뎀스도 미국 내 흔한 고정관념과 달리 레닌주의자가 아니라 공화주의적 사회주의자이었기에 당시 대중적 힘을 가짐
- 한국 리버럴 정치의 근본 한계는 철학적 뿌리가 단단한 이가 적다는 점임
- 지금은 철학을 폄하하는 나라이지만 민주공화국을 지향하는 한국 정치에 앞으로 공화주의자의 시대가 올 것임

뉴 미디어 시대에는 주목이 전부? : 인간적 존엄이 바탕이 된 혁신

- 싸가지 없음이 곧 쿨한 리버럴의 태도가 아님을 샌더스는 잘 보여줌. 급진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자로 힐러리에 대한 인신공격 네가티브 거부 (네가티브는 나쁜 것이 아님)
- 고 신영복, 고 김근태 등 민주화 운동의 진정한 정신은 이념주의나 혹은 병리적인 트럼프의 분노의 정치와 달리 더 인간을 지향하고 고양시키는 ‘영혼의 정치’임
- 한국 정치도 이 영혼의 정치 대 저열한 정치가 되어야만 리버럴이 결국 보수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승리가 가능

<민주당 혁신의 비밀: 샌더스와 함께 힐러리에게 동시에 배워야 한다>

- 한동안 샌더스 열풍 속에서 힐러리의 탁월함을 쉽게 잊음. 오바마, 힐러리 등 민주당 실용주의 진보주의자들은 시대정신과 떠오르는 아젠다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탁월성 보임.
- 마치 알파고처럼 심지어 샌더스 급진주의로부터도 빠르게 배우는 가공할만한 학습과 진화 능력 가진 미국의 민주당의 반응성이 오늘날 공화당의 연이은 패배의 비밀임
- 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 한국 리버럴 정치 최대의 아킬레스건은 이 반응성의 결핍. 한국 리버럴 정치는 시민 개입주의는커녕 아직 반응과 공감의 정치 시대로 진입 못함.
- 좌파의 역동성 없는 리버럴은 무기력하고 리버럴의 반응성 없는 좌파의 약진은 공허하다

<미국 정치 질서 사이클과 한국은 다르다>

-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신이 놓인 시대의 정치질서를 감각적으로 포착하는 능력임
- 한국은 오바마나 샌더스의 시대가 오기에는 분단 현실과 저성장 국면에서 더 어렵고 복잡한 한국적 특징을 가짐
- 굳이 미국에 비유하자면 한국은 68년 낡은 민주화 운동 패러다임 및 분열의 시대 대 노회한 닉슨주의 보수의 시대에 더 가까움. 이 틈새를 파고 들 한국판 '초당적 아이젠하워'가 등장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임
- 68년 낡은 민주화 운동의 관성은 미국의 험프리, 맥거번 등 부단한 실패를 양산함. 이 관성을 넘어서고자 한 맥카시의 맥빠진 중도주의 운동이나 로버트 케네디의 실용적 진보주의 운동도 시대적 한계를 가지고 분열의 나락에 빠짐
- 반면에 노회한 닉슨주의 보수는 한편으로 반대당의 기본 소득 아젠다 등을 벤치마킹하고 진영 내를 균열 시키면서 영구적 보수 집권을 꿈꾸기도

함

- 한국은 샌더스와 오바마를 꿈꾸기 전에 먼저 한국판 68년 시대인 민주화 운동 시대, 닉슨주의 박근혜 시대를 넘어선 오늘날의 간절한 꿈, 가치, 애티튜드, 정치세력 형성이 중요함. 단지 좋았던 시절에의 향수 넘어 오늘날 다가오는 디스토피아 시대를 극복할 행복한 삶의 미래에 대한 담대한 꿈과 이를 위한 일상적 혁신 실험이 중요함.
- 샌더스와 오바마를 주목하기 전에 그들을 만들어낸 것은 사실은 자기의 미래를 희생해가며 역동적인 뉴 파티로의 혁신을 만들어 낸 하워드 딘 당 의장과 21세기형 시민정치운동임
- 과거 20세기 유럽식 진보 정당 모델이나 미국 청중 민주주의 모델 넘어 시민개입주의 정당과 직접 민주주의 운동의 결합 필요
- 미국과 기존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백기완 등의 진보 전통과 고투의 성찰 및 21세기 한국 미래 세대의 임파워링 속에 답이 존재함.
- 샌더스 현상은 미국과 한국에서 '리얼 씽'의 등장과 아래로부터의 혁신만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짐